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27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녹지정책과	담당자	• 산림자원팀장 박은지 ☎440-3681 • 담당자 최진호 ☎440-36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마니산 산불 안전하고 철저한 진화가 최우선

- 27일 산불 발생 현장 찾아 진화 작업상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 재발 막기 위한 철저한 뒷불 감시와 진화 인력의 안전한 진화 작업 당부 -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화군 마니산 산불 현장을 찾아 안전하고 철저한 진화를 당부했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3월 27일 06시 30분경 강화군 마니산 산불 발생 현장을 직접 찾아 진화 작업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14시 44분경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마니산 초입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및 소방 당국에서는 산불 1단계와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소방차 등 장비 60여 대와 진화대원, 공무원, 군부대, 의용소방대 등 1,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정수사와 민간에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주·야간에 걸쳐 진화 작업을 벌였다.

강화군에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투입했으며, 시에서도 도시균형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파견돼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를 지원했다.

27일 08시 현재 이번 산불의 주불은 진화가 완료된 가운데, 피해 산림면적은 약 22ha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인명피해는 없으며, 우려됐던 정수사 사찰의 문화재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주불이 잡힘에 따라 27일 아침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으며, 27일 08시 현재 100% 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산림당국과 강화군은 산불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잔불 및 뒷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다.

화재 현장을 찾은 유정복 시장은 “산림청과 소방, 군 장병, 공무원이 공조해 진화 작업에 최선을 다한 덕분에 주불이 잡혀 다행”이라며,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마지막 불씨까지 특별히 살피고 뒷불 감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 아침부터 산불 진화와 뒷불 감시를 위해 많은 인력이 산에 올랐는데, 마니산은 암벽이 많아 위험한 만큼 무엇보다 안전하게 진화 작업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설명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7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현장지휘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산불진화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 ▲사진설명 : 27일 산림, 소방당국이 강화도 마니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 ▲사진설명 : 26~27일 소방당국이 강화도 마니산 정수사 산불파해를 막기 위해 소방력을 배치하고 있다.〉